기획논문

타자를 마주하기

—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인식과 관계

여기에 실린 3편의 논문은 “아시아의 무슬림-비무슬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집담회의 결과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꾸란 주석학, 오스만제국사, 근대 이슬람 사상을 각각 연구하고 있으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조우에 대해 덜 알려진 측면들을 보여주는 논문을 하나씩 썼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무슬림 인구가 적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관계가 항상 적대적이지도, 그들 사이의 상호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도 않았으며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양한 꾸란 주석에 입각하여 알레나 쿨리니치는 어떻게 사비윤이라고 불리는, 정체가 불확실한 수수께끼의 종교공동체가 무슬림 저술가들에 의해 어떻게 상상되고 성격지워졌는지를 탐구하였다. 사비윤에 대한 논의는 단지 하나의 특정한 비무슬림 집단의 성격에 대한 의문의 수준을 넘어, (아브라함의 종교들에 속하지 않는 비무슬림을 포함하여) 비무슬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의를 갖는다. 이은정의

논문은 17-18세기의 예니체리들이 비록 터키와 발칸반도에서 모두 단순히 오스만제국의 순니 무슬림 군사력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로부터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종자들의 자원 입대를 종종 받아주었고, 벡타시 수피들이 계도하는 혼합된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기독교인들과 긴밀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찰은 오스만 제국 안에서 진실로 번영과 성장에 목표를 둔 어떠한 조직이라도 오스만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한 기독교인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시아바시 사파리는 20세기 초 식민지 인도의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무함마드 이끄발의 사상을 다룬다. 이끄발은 근대 서양 과학의 발전에 감탄하면서도 서양을 이슬람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이끄발은 이슬람적 동양과 물질주의적 서양을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된 동등한 문명들로 보았고, 양자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관계는 한국에서나 세계 전체에서나 모두 정면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 실린 기획 논문들은 3편의 역사적인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학술적 관점에서 이 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고전 이슬람 텍스트, 이슬람의 역사, 근대 이슬람 사상에 관련된 연구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은정

Engaging the Other:

Perceptions and Relations between Muslims and non-Muslims

The three articles presented here are the results of a series of colloquia entitled "Encounters of Muslims and non-Muslims in Asia,"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support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ributors, specialists respectively of Qur'anic exegesis, Ottoman history, and modern Islamic thought, have each contributed an article on lesser known aspects of the encounter between Muslims and non-Muslims. It is hoped that these articles, arranged in roughly chronological order, will introduce readers to new topics within the vast range of Muslim/non-Muslim relations.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 dramatic rise in prejudice against Muslims around the world, and South Korea, which has a rather small (and mostly invisible) Muslim population, is no exception. Given the situation, it behooves scholars engaged in the study of Islam to show that relations between Muslims and non-Muslims were not always so hostile, nor the interperceptions so negative, and that another way is possible.

Based on diverse Qur'anic exegeses, medieval and modern, Alena Kulinich explores how the enigmatic religious community called the

Sabians, whose identity remains uncertain, was imagined and characterized by Muslim authors. Discussions on the Sabians transcen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is specific non-Muslim group, and have implications for whether any non-Muslim (even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 Abrahamic religions) can be saved. Eunjeong Y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janissaries in the seven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often portrayed simply as a Sunni Muslim force of the Ottoman Empire both in Turkey and the Balkans, were actually often recruited from recent Christian converts on a voluntary basis, and had a rather mixed spirituality led by Bektashi Sufis, while maintaining close economic and social ties with Christians. These observations seem to prove that any organization that truly aimed at prosperity and growth could not exclude Christians, who accounted for more than 30% of the Ottoman population. Third, Siavash Saffari deals with the ideas of Muhammad Iqbal, a famous intellectual of early-twentieth-century colonial India. While admiring the scientific achievements of the modern West, Iqbal also critiqued the West from the standpoint of Sufi Islam; Iqbal saw the Islamic East and materialist West as civilizational equals that are historically and fundamentally interconnected, and called for dialogue and exchange between them.

The relations between Muslims and non-Muslims must be addressed squarely and sincerely both in Korea and in the wider world, and these Special Topic articles constitute just a small effort to contribute to this proc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by highlighting three historical cases. We hope that further studies on the classical Islamic texts, the history of Islam, and modern Islamic thought, will open up new possibilities in the future.